

영웅과 토큰 - 조안 로빈슨 경제학의 특징과 기여 그리고 한계*

홍 태 희**

논문 초록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안 로빈슨의 삶과 경제학을 소개하고, 로빈슨 경제학의 기여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조망한다. 특히 그녀가 어떻게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케임브리지학파(Cambridge school)’의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남성 주도의 경제학계에서 여성을 희생양으로 이해하는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시각도 가능성을 로빈슨 사례로 살펴보면서 여성학자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환기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로빈슨의 삶과 학문 세계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로빈슨 경제학의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로빈슨 경제학의 기여와 한계를 살펴본다. 아울러 로빈슨 경제학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로빈슨에 관한 몇 가지 논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어떻게 유리천장을 깨뜨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의 방법은 로빈슨의 저작과 로빈슨에 관한 2차 자료에 관한 문헌 연구를 주로 한다.

핵심 주제어: 조안 로빈슨,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 토큰니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0, B0, B3

투고 일자: 2025. 6. 12. 심사 및 수정 일자: 2025. 8. 5. 게재 확정 일자: 2025. 10. 24.

* 본 연구는 2025년 조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hth@chosun.ac.kr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서서 여성 경제학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 경제학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경제학계의 남초현상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고, 여학생을 보기 어려웠던 경제학과와 모습이 옛말이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여성경제학자가 학계뿐 아니라 국제경제기구나 정부 기관, 각종 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에는 여성 노동문제를 주로 연구한 클로디아 골딘(Claudia Goldin)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2025년 기준 노벨 경제학 수상자 총 99명 중 여성은 3명인데, 단독 수상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첫 여성 종신교수인 골딘의 노벨상 수상은 경제학계의 변화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경제학계의 변화는 사회가 양성평등적으로 변한 탓도 있지만, 국제여성주의 경제학회(IAFFE)를 중심으로 ‘성인지적(gender-aware)’ 경제학을 만들려고 한 그간의 노력에 힘입은 바도 크다. 성인지적 경제학 연구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주로 한다. 이외에도 경제학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학자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여성경제학사 분야가 있다. 이는 역사의 베일에 가린 여성학자들을 찾아서, 이들의 작업을 재조명하는 연구 분야이다(Dimand, Dimand, and Forget, 2000; Becchio, 2009; Kuiper, 2018; 2022).

이러한 여성경제학사 연구에는 크게 보아 두 갈래의 연구 경향이 있다. 첫 번째 갈래는 남성이었던 스승이나 남성 파트너의 학문 세계에 가려진 여성학자의 기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학문 세계 속에서 아내 해리엇 테일러 밀의 기여를 확인하는 작업이나(홍태희, 2023a),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의 경제학에서 경제학자였던 아내 메리 페일리 마셜(Mary Paley Marshall)의 기여 부분을 살펴보는 연구이다(Keynes, 1974, pp. 201-232; Pujol, 1984; 홍태희, 2023b).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여성경제학자와 협업하였고, 그것이 그의 학문적 성공을 이끌었다고 밝히는 것도 이런 연구에 속한다. 소비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던 프리드먼이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항상소득가설’을 세웠다가, 1963년 출판된 『미국 통화사 1867-1960(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 - 1960)』에 그와 협업한 애나 제이콥슨 슈워츠(Anna J. Schwartz)의 기여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조명하는 작업이다.¹⁾

두 번째 갈래는 남성 지배적인 경제학계에서 여성경제학자가 그들의 학문적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던 점을 주로 밝힌다. 이런 여성경제학자로 마거릿 리드(Margaret G. Reid), 에디스 애벗(Edith Abbott), 헤이즐 카일(Hazel Kyrk), 마리아 미즈(Maria Mies) 등이 있다. 여기에 노벨경제학상 수상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여성이라서 수상하지 못했다는 조안 로빈슨(Joan V. Robinson)도 종종 거론된다.

하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경제학사를 연구한다면 여성학자를 ‘여성 피해자 관점’만이 아니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사실 성별이 오히려 학문적 성공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근대경제학사에서 여성이라서 오히려 출세에 도움이 된 사례를 들자면 조안 로빈슨을 들 수 있다.

로빈슨이 보수성이 강했던 당시 영국 경제학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교육자와 연구자로 치열하게 살았고,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로빈슨에 관한 최근 연구에는 이와는 다른 주장도 있다. 로빈슨의 경우 여성이라는 점이 오히려 학문적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로빈슨이 주위 남성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엿한 경제학자로 성장했고, 국제적인 주목까지 받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로빈슨이 수행한 연구의 고유성 문제까지 등장한다(Brady, 2018; 2022; Aslanbeigui and Oakes, 2009).

사실 로빈슨은 대부분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성 역할, 즉 어머니나 아내 역할에 별로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오스틴 로빈슨(Austin Robinson, 이하 오스틴)은 그녀에게 경제학 연구 방법을 가르쳐주었고, 그녀가 출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으며, 그녀의 불륜조차도 묵인했다. 게다가 연인이었던 리처드 칸(Richard Kahn)도 그녀를 가르쳤고, 그녀의 학문적 단점을 보완해 주었다. 그 외에도 당시의 많은 남성 경제학자가 그녀를 도왔고, 이런 도움에 힘입어 로빈슨은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빈슨의 삶과 경제학을 ‘여성 피해자 관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빈슨은 학자로서 열심히 살았다. 그녀는 5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24권의 책을

1) 실제로 슈워츠는 12년 넘게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를 정리했다(이현재, 2025). 이처럼 프리드먼과 핵심 부문을 같이 연구했지만, 프리드먼이 노벨상을 받을 때도 프리드먼의 단독 업적인 것처럼 소개되었다.

포함하여 443점 이상의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로빈슨 경제학에 관한 연구도 그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로빈슨이 사망한 1983년에는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특히 제프리 하코트(Geoffrey Harcourt)에 의해 편집된 책이 주목받았다(Harcourt, 1983; Gram and Walsh, 1983). 1996년에는 사망 10주기를 추모한 책이 출판되었고(Marcuzzo et al., 1996), 이후에도 그녀의 생일이나 기일에 맞추어 이를 기리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이 관심을 받게 되자 로빈슨의 경제학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빌 깁슨(Bill Gibson)이 로빈슨의 학문 전반에 관한 편집본을 출판했다(Gibson, 2005).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경제학의 위기를 타개할 가능성을 찾으려는 연구자들은 로빈슨 경제학을 다시 주목했다. 왜냐하면 로빈슨 경제학에는 주류경제학과 다른 경제학방법론과 여성주의 및 생태주의적 관점이 있으며, 경제적 실재를 포착하기 위한 다원주의적 특징도 있어서 대안경제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2009년에는 오랫동안 로빈슨과 직접 교류했던 제프리 하코트(Geoffrey Harcourt)와 프루 커(Prue Kerr)가 로빈슨의 경제학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Harcourt and Kerr, 2009).

2009년에 나히드 아슬란베이구이(Nahid Aslanbeigui)와 가이 오크스(Guy Oakes)가 로빈슨이 경제학자가 되는 과정을 부정적 측면에서 다룬 책이 출판되었다(Aslanbeigui and Oakes, 2009). 아슬란베이구이와 오크스는 경제학계에서 이미 영웅이 된 로빈슨의 진면목을 허세에 가득 차고, 오만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기회를 엿보고, 주위 남성을 조정하여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는 야심가로 그린다. 2011년에 실비아 나사르(Sylvia Nasar)도 로빈슨이 명성을 얻으려 하고, 귀빈 대접받으려 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비판적인 글을 발표했다(Nasar, 2011).

이런 논란에도 로빈슨에 관한 연구는 여성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2021년에는 실라 다우(Sheila Dow)가 로빈슨이 1962년 쓴 『경제철학(Economic Philosophy: An Essay on the Progress of Economic Thought)』을 재출판하면서 로빈슨의 학문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머리말을 썼다(Dow, 2021). 같은 해에 아이린 반 스타베런(Irene van Staveren)은 로빈슨 경제학과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를 출판했다(Staveren, 2021). 2022년에는 카롤리나 알베스(Carolina Alves)가 로빈슨의 맑스경제학 이해에 관한 논문을 출판하면서, 맑스의 영향으로 로빈슨

이 마셜의 경제학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Alves, 2022). 2023년에 크리스틴 오튼(Christine Oughton)과 데미안 토빈(Damian Tobin)은 로빈슨이 로이 해로드(Roy Harrod)가 경제성장론에서 기술을 외생변수로 삼은 것을 비판했고, 기술 진보의 내생성을 주장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로빈슨을 초기 내생적성장론자로 평가하는 연구를 발표했다(Oughton and Tobin, 2023).

이렇게 로빈슨에 관한 연구가 국외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1974년에 주명건이 『경제철학』을 번역했고, 1979년에 주종환이 로빈슨이 존 이트웰(John Eatwell)과 공저한 『현대경제학 비판(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을 번역했다. 1981년에 박영일이 로빈슨이 1937년 출판하고 1967년에 재판한 『케인즈 고용이론 입문(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Employment)』을 번역했다.

하지만 로빈슨 경제학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로빈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2005년 오정근의 전기적인 논문, 2014년 박만섭이 로빈슨의 『자본축적론(The Accumulation of Capital)』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소개한 글, 그리고 2024년 김태원이 『불완전경쟁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의 해설서를 전자책으로 출판한 것 외에는 찾기 어렵다(오정근, 2005; 박만섭, 2014; 김태원, 2024). 그래서 국내에서는 로빈슨 경제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로빈슨 경제학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로빈슨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며, 여성학자의 성공이나 실패에 미치는 사회적 권력관계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조안 로빈슨의 삶과 경제학을 소개하고, 로빈슨 경제학의 기여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살펴본다. 특히 그녀가 어떻게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케임브리지 학파(Cambridge school)’²⁾의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남성 주도 경제학계에서 여성을 희생자로 이해하는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시각도 가능함

2) 케임브리지학파는 쿠누트 빅셀(Knut Wicksell)의 영향을 받은 로버트슨과 케인즈를 중심으로 한 학파이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포스트 케인지언인 학자들을 ‘케임브리지 케인지언(Cambridge keynesian)’이라고도 분류한다. 대표적 학자는 로빈슨, 칸, 칼도, 칼레츠키, 스라파이다.

을 로빈슨 사례로 살펴보면서 여성학자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환기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로빈슨의 삶과 학문 세계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로빈슨 경제학의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로빈슨 경제학의 기여와 한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로빈슨 경제학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로빈슨 경제학에 관한 몇 가지 논란을 소개한다. 연구 방법은 로빈슨의 저작과 2차 연구자료에 관한 문헌 연구를 주로 한다.

II. 조안 로빈슨 경제학의 전개 과정

1. 조안 로빈슨의 삶과 세계관의 변화

로빈슨의 삶과 학문 세계는 그 자체로 근대경제학의 역사라고 할 만큼 다채로웠다. 그녀는 20세기를 살면서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었고, 68운동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살았다. 로빈슨은 영국 서리(Surrey)주에 있는 챔벌리(Camberley)에서 자유주의적 분위기를 가진 상류층 집안에서 출생했다. 그녀는 비판적이고 진취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성품을 가졌다고 한다. 이런 성품은 연구할 때도, 교육할 때도, 삶에서도 거침없이 나타났고, 로빈슨은 원하는 것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성취했다.

그녀는 1922년부터 케임브리지의 거튼 칼리지(Girton College)에서 마셜과 모리스 돕(Maurice H. Dobb)의 영향을 받아 경제학을 공부했고,³⁾ 1925년에는 졸업 시험에 해당하는 ‘경제학 트리포스(Economics Tripos)’를 2등급의 성적을 받고 졸업했다(Pasinetti, 1987). 하지만 케임브리지대학교는 1948년까지 여성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학위를 받지는 못했다. 다음의 <Table 1>은 로빈슨의 삶과 관심의 변화 그리고 학문적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3) 로빈슨이 맑스주의자 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를 부정하는 의견도 있다. 호지슨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Hodgson, 2019, p. 20).

〈Table 1〉 Life of Joan Robinson and Development of Joan Robinson's Economics

Period and Economic Thought	Life and Scholarship
Period I : 1903~1930 • Educated in neoclassical economics • Interested in Marxian economics • Became an economist after marriage	• Born October 31, 1903 • Enrolled at Girton College, Cambridge in 1922 • Graduated from Girton College, Cambridge in 1925 • Married economist Austin Robinson in July 1926 (with two children, Ann and Barbara) • Returned from India to Cambridge, England in 1928 • Began lecturing in economics
Period II : 1931~1971 • Shift from neoclassical economics to heterodox economics • Became a central figure in the Cambridge School • Concerned about the issue of low wages for women • Promoted Keynes's economics and created post-Keynesian economics • Turned to socialism	• Formed Cambridge Circus in 1931 • Lecturer at Cambridge University from 1931 to 1964 • Published <i>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i> in 1933 • Published <i>Essays in the Theory of Employment</i> in 1937 • Published <i>An Essay on Marxian Economics</i> in 1942 • Published <i>The Accumulation of Capital</i> in 1956 • Member of the British Academy in 1958 • Published <i>Exercises in Economic Analysis</i> in 1960 • Fellow of Newnham College in 1962 • Published <i>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i> in 1962 • Published <i>Philosophy of Economics: Studies in Progressive Economic Thought</i> in 1962 • Professor, Girton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in 1965 • Keynote Addres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in 1971 • Published <i>Economic Heresies: Some Old-Fashioned Questions in Economic Theory</i> in 1971
Period III : 1972~1983 • Socialism • Ecologism • Nihilism • Vegetarianism	• Retired from Cambridge University in 1971 • Became the first female Honorary Fellow of King's College in 1979 • Published <i>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i> in 1978 • Published <i>Further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i> in 1980 • Died on August 5, 1983

Source: Harcourt(1983); Harcourt and Kerr(2009); Gibon(2005); 오정근(2004).

로빈슨은 1926년 경제학자 오스틴과 결혼했고, 슬하에 딸 앤과 바버라를 두었다.⁴⁾ 남편 오스틴이 인도 마하라자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자 부부는 결혼 두 달 후 인도로 건너가 살았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녀는 개발도상국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⁵⁾ 선진국의 제국주의적 확장과 군비 경쟁을 비판하게 되었다고 한다. 1928년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후 오스틴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로 일했고, 로빈슨도 비정규직이지만 대학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녀는 1937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중신 경제학 강사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의 위원회에 참가했다. 1958년에는 ‘영국 아카데미(British Academy)’의 회원이 되었고, 1962년에는 뉴넴 칼리지(Newnham College)의 펠로우가 되었다.

1965년 남편 오스틴이 퇴직하자 거튼 칼리지의 정교수가 되었고, 1971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도 연구를 계속했고, 1979년에는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의 첫 여성 명예 펠로우가 되었다. 노년의 로빈슨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 관심을 가졌고, 소련, 중국, 북한을 직접 방문했고, 이들 나라의 경제정책을 칭송했다. 그녀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을 보고 완전고용이 실현되었다고 열광했다고 한다.

말년의 로빈슨은 자신의 학문적 비전이 실현되지 않는 세상을 한탄했고, 염세적 경향까지 보였다. 채식주의자였던 로빈슨은 생태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집 정원에 있던 오두막에서 난방도 하지 않고 살다가 1983년 사망한다.

2. 조안 로빈슨 경제학의 전개 과정

로빈슨은 빈곤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런 소명 의식은 연구의 잣대로 작용했고, 현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학을 하려고 했다.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관점을 꾸준히 바꾸어 나갔다. 1920년대에 신고전파경제학으로 시작했으나, 1930년대에는 케인즈 경제학의 세상을 만드는 것에 앞장섰다.

경제학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돕의 영향을 받은 로빈슨은 1930년대 말부터 맑스

4) 로빈슨의 남편은 그녀가 자기 경력을 만드는 일에 대체로 관대했고, 로빈슨은 여러 가지 배려를 받으며 육아나 가사노동에 시간을 쓰지 않고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로빈슨 아이의 대모였고 마셜의 아내였던 메리 페일리 마셜의 삶과는 비교된다(홍태희, 2023b, p. 192).

5) 그녀는 후진국 개발을 위해 교육과 인프라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Harcourt, 1983).

경제학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로빈슨은 케인지언이 되기 전부터 맑스경제학을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케인지언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케인즈 경제학도 장기적인 경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지만 “케인즈의 경제학이 그나마 최선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로빈슨은 신고전파경제학자로 성장했지만, 신고전파경제학을 넘어섰고, 시장균형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재와 역사로 다가가려 했다. 이런 학문적 관점은 그녀를 케인즈경제학으로 이끌었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 것에 주력했다. 그녀 스스로 정한 연구과제는 ‘케인즈 이론의 장기화’였는데, 그녀는 이를 ‘일반이론의 일반화’라고 하며 추진했다(Martins, 2023; 박만섭, 2014).

빈곤 문제에 관한 그녀의 관심은 세계 경제,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에도 닿아서, 부유한 나라 대부분이 이웃의 가난한 나라에 피해를 주면서 발전한다는 ‘근린 공핍화 이론’도 제시했다. 그녀는 불평등과 개발도상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도 티루반타푸람에 있는 ‘개발연구센터(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CDS)’를 자주 방문했고, 1970년대 중반에는 CDS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운영 기금도 주었고, 학생 세미나에도 참여했다.⁶⁾

로빈슨은 경제학자로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과 경력에 도움이 되면 모든 수단을 썼다(Aslanbeigui and Oakes, 2009). 그녀는 넓은 인맥을 갖추었는데 케인즈, 제임스 미드(James Meade), 해로드, 칸, 오스틴, 피에로 스라파(Piero Sraffa) 등은 동료이며 스승이었다. 1930년대에는 미드, 칸, 오스틴, 스라파 등과 ‘케임브리지 서커스(Cambridge Circus)’를 조직해서 같이 연구하며 ‘케임브리지학파’를 만들었다.

로빈슨은 1933년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을 집필한 후, 경제학계의 중심부로 들어갔다. 1937년에는 『일반이론』을 쉽게 설명할 목적으로 『고용이론 연구(Essays in the Theory of Employment)』와 『고용이론 입문(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Employment)』을 썼다. 1950년대부터는 신고전파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면서 경제학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3년 쓴 논문 “생산함수와 자본이론(Th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Theory of Capital)”으로 미국의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 로버트 솔로우(Robert

6) 로빈슨은 자신이 쓴 책 두 권(*Selected Economic Writings,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의 인세를 CDS에 기부할 만큼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이 많았다.

Solow)와 ‘케임브리지 자본논쟁(Cambridge Capital Controversy)’을 벌였다. 그녀는 자본이 측정되거나 집계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논쟁에서 승리했다.⁷⁾

이후 1956년에 출판된 『자본축적론(The Accumulation of Capital)』에서는 미래에 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포함한 경제학과 경제학방법론까지 제시하며 케인즈 경제학의 장기화를 추진했다(Robinson, 1956). 그리고 1962년에는 『경제성장론(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을 집필했다(Robinson, 1962a). 하지만 이 두 책은 로빈슨이 기대한 만큼의 공명을 학계에 주지 못했다. 이는 이 책들이 논리적 일관성이나 명료성을 갖추지 못한 탓이기도 했다.

경제학자로 연륜이 쌓일수록 로빈슨은 빈곤, 분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Alves, 2022).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으려던 그녀의 열망은 현실 사회주의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로빈슨은 생전에 8번이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사회주의의 현실적 실현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경제학자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 경제학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한다(Bhaduri, 2010, p. 32).

1962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일반 대중서를 주로 쓰면서 대중을 계몽하려고 했다. 1962년 출판한 『경제철학』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녀가 후학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다(Robinson, 1962b, p. 7). 그 길을 찾으려고 로빈슨은 말년에 경제학방법론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케인즈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원래 케인즈’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면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지평을 열었다.

전체 연구 과정에서 로빈슨은 케인즈경제학에 영향을 받았고, 케인즈경제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소명으로 삼았지만, 유효수요를 강조하는 케인즈경제학을 넘어 권력관계와 실재를 강조하는 맑스경제학의 일부를 수용했다. 그래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을 만들어 갔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역사의 비가역성을 배경으로 한 경제학

7) 아래 인용문에는 자본과 관련된 로빈슨의 생각이 요약되어 있다.

“생산함수는 경제학 교육을 잘못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이론을 배우는 학생은 $Q = f(L, C)$ 로 생산함수를 쓰도록 배운다. 여기서 L 은 노동량, C 는 자본량, Q 는 상품생산량이다. 노동자를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L 은 노동시간으로 측정하라고 배운다. 산출량의 단위를 선택할 때 경제지수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C 는 어떤 단위로 측정되는지 묻는 것을 잊어버리길 바라며, 서둘러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학생은 이를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교수가 되고, 이런 허술한 사고방식은 세대를 넘어 계승된다.”(Robinson, 1954, p. 81).

을 만들기 위해 로빈슨은 스라파의 신고전파경제학 비판, 맑스의 재생산도식, 칼레츠키의 성장과 분배론 및 유효수요 개념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다.

로빈슨은 칼레츠키 경제학에 나타나는 맑스적 통찰과 칼레츠키 가격 결정이론의 현실성을 높이 샀지만, 칼레츠키 경제학도 자본의 이윤율 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칼레츠키 경제학의 약점인 불확실성, 승수효과, 화폐의 역할을 케인즈의 경제학으로 보완하려고 했다(Robinson, 1975, p. 122).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로빈슨의 경제학은 케인즈경제학보다는 칼레츠키 경제학에 가까웠다.

1971년 대학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그녀는 연구에 매진했는데 사무엘슨이 로빈슨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분석적 경제학자 중 한 명”이라고 평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학자가 되었다(Samuelson, 1970, p. 397). 삶의 마지막 10년 동안 로빈슨은 주류경제학의 개선 가능성을 점점 부정적으로 보았다(Martins, 2023). 당대의 경제학을 ‘봄철 대청소’로 폐기해야 한다고 했을 만큼 극단적으로 신고전파경제학을 비판한 로빈슨은 자신의 비전이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예견했다. 로빈슨 사후에 출판된 다음 글은 그녀가 경제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내가 보기에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이론과 모형 전체에 대한 철저한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자기모순적인 명제들, 측정할 수 없는 양, 정의할 수 없는 개념들을 던져버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분석을 위한 논리적 기초를 재구성해야 한다.”(Robinson, 1985, p. 160).

Ⅲ. 로빈슨 경제학의 특징

1. 비판경제학적 특징

로빈슨 경제학의 특징은 무엇보다 ‘비판적’이라는 점에 있다. 로빈슨은 각 경제학파가 나름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각 학파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였고, 오류는 가차 없이 비판했다. 경제학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과학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경제이론을 검증했고, 비판하며, 다양한 경제학파와 각을 세웠다.

그래서 자신의 학문적 뿌리인 신고전파경제학을 비판했고, 자기 동료들이 만든 케인지언 경제학⁸⁾을 비판했으며, 환경을 파괴하는 소비 문화를 비판했고,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는 강대국을 비판했다. 무엇보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경제학 연구의 첫걸음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로빈슨은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근본 문제를 실재와 괴리된 형식적 이론을 고집하는 것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녀는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핵심인 마셜의 경제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⁹⁾, 마셜의 형식주의적 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고전파경제학을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고전파경제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랫글은 로빈슨이 신고전파경제학의 오류를 인지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 [...] 당시에는 배워야 할 ‘경제법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잘 확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의 세대는 이런 것이 통용되던 마지막 세대였다고 생각한다. 단단해 보였던 지축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Robinson, 1960, p. 88).

아랫글도 그녀의 학문적 편력에 관한 자기 고백이다. 자신이 배운 경제학을 ‘저급한 경제학’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적 현실과 맞지 않는 신고전파경제학의 시장균형론을 비판한다.

“나는 그러지 않아도 저질인 경제학이 유난히 저급한 수준에 있던 시절에 대학에 있었다. 영국에는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업 상태였지만, 나는 선배 교수와 함께 세이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

8) 케인즈 자신의 경제학인 케인즈경제학과 케인즈의 추종자에 의해 발전한 케인지언 경제학, 또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구별되어야 한다. 힉스 등이 만든 IS-LM 곡선 같은 케인지언 경제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경제학자들이 포스트 케인지언이다. 이들은 케인지언 경제학이 신고전파경제학과 야합했다고 비판하며 다시 케인즈 고유의 경제학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다(홍태희, 2024, p. 212).

9) 로빈슨은 “자신이 공부할 때 마셜의 『경제학 원론』은 성경책이었고, 마셜은 경제학 자체”였다고 했다(Robinson, 1973, p. ix).

다고 가르쳤다.”(Robinson, 1960, p. 88).

로빈슨은 이렇게 신고전파경제학의 시장균형과 이윤극대화 및 한계주의가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불완전경쟁 하에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조명하며, 시장 구조에 따른 현실적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이렇게 그녀는 현실과 상식에 맞는 학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시장균형을 인정할 수 없었다.

로빈슨은 “실제 역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균형상태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Robinson, 1962a, p. 25). 그녀는 또한 ‘균형’ 개념은 “변화의 효과를 논의하는 것에 사용될 수 없다. 균형은 추상화된 차이의 비교만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Robinson, 1978a, p. xix). 그리고 수요와 공급곡선 배후에 있는 한계 개념을 비판하며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균형이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적용되는 것을 막고, 장기 분석을 구축하기 위해 스라파 경제학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obinson, 1978b, p. 82).

하지만 로빈슨은 스라파가 신고전파경제학을 비판할 기반을 제공했지만, 스라파의 ‘상품에 의한 상품의 생산’ 개념이 “건설적 분석을 위한 매우 협소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Bhaduri and Robinson, 1980, p. 64).

이렇게 로빈슨은 기존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자본이론과 균형이론은 물론 방법론까지 비판했다. 그리고 경제학을 신고전파경제학이 주장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학문이 아닌 부의 기원과 분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수학이 객관성이나 가치 중립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신고전파경제학의 이런 연구 방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존 경제시스템의 재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경제학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보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Cuyvers, 2022).

그녀는 케인즈의 학문과 현실적 영향력에 매료되었고, 케인즈경제학을 추종했지만, 존 히스(John Hicks) 같은 케인지언의 작업은 비판했다. 그리고 케인즈의 유효수효이론을 장기화하는 연구를 했지만, 연구하면서 만든 자신의 성장론도 비판하면서 비판경제학자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였다(Martins, 2023; Harcourt 1972).

맑스경제학도 어떤 부분은 인정하였지만, 어떤 부분은 비판했다. 로빈슨은 맑스

의 자본주의 분석은 인정했다. 하지만 맑스의 사상에서 해궁적 요소를 거부했고, 노동가치론도 부적절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했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도 인정하지 않았다(Robinson, 1942, p. 10, p. 42; Hodgson, 2019, p. 20). 특히 로빈슨은 교조적 맑스주의를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비참함보다 착취되지 못하는 비참함(실업)은 더 크다며” 비판했다. 이런 비판 때문에 맑스주의자들도 로빈슨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녀는 당시의 경제학이 파산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1930년대 공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제학의 제1 위기에 케인즈경제학이 등장한 것처럼, 1960년대부터의 경기침체를 해명하지 못하는 경제학을 경제학의 파산, 즉 제2 위기로 이해하고, 경제학을 다시 만들려고 했다. 아랫글은 로빈슨이 당시의 경제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학이 명백하게 파산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장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경제학자가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Robinson, 1972, pp. 9-10).¹⁰⁾

2. 다원주의적 특징

로빈슨 경제학의 또 다른 특징은 ‘다원주의(pluralism)’이다. 경제학에서 다원주의는 특정한 학파나 특정한 방법론으로 연구하지 않고, 다양한 학파나 다양한 경제학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다원주의 경제학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경제학으로 급부상했고, 비주류경제학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홍태희, 2022, pp. 3-5). 이런 다원주의 경제학에 로빈슨이 선구적 작업을 했다고 평가된다(Staveren, 2021, pp. 177-180).

10) 1971년 로빈슨은 전미경제학회에서 ‘경제학 제2의 위기’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제2의 위기인 것은 그녀의 생애에서 겪은 제2의 위기라서 칭한 것이다. 제1의 위기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이 실효성을 상실했지만, 대안 이론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제1의 위기에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등장했고, 케인즈혁명이 일어났다. 제1의 위기는 고용이 문제였던 것에 비해 로빈슨이 해석한 경제학 제2의 위기는 분배의 공정, 빈곤의 해소 등이 긴급한 문제였다. 제1의 위기 때는 더 많은 고용을 요구했으나, 제2의 위기는 ‘무엇을 위한 고용인가’가 중심 과제라고 로빈슨은 주장했다(Robinson, 1972).

로빈슨 경제학은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이 융합된다는 측면에서 다원적이다. 그녀는 연구에는 사회적 덕목이나 실현되어야 할 사회정의가 전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학 연구도 합리적 이성을 통한 정량화 작업만이 아니라 가치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어떤 경제학도 가치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며, 경제학은 각 시대의 지배 이념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래서 규범적 판단과 경제학이 괴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가치, 양심, 규범 등이 작동하는 경제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증과 규범을 동시에 채택하면서 경제학계가 토론하고 논쟁하며 ‘좋은 경제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로빈슨은 경제 운영 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경제학 연구를 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그녀의 경제학은 윤리적인 기초와 과학주의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다원적이다(Staveren, 2021, pp. 184-186).

또한 로빈슨 경제학은 여러 학파의 관점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원적이다. 전체 학문 역정에서 로빈슨은 마셜의 경제학에서 시작하여, 케인즈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수요를 강조하는 케인즈경제학을 넘어서서 권력관계와 역사적 현실을 강조하는 맑스경제학의 일부를 수용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케인지언의 길을 개척한 전 과정은 다원주의적이었다.

로빈슨은 실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특정 학파의 주장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학파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다. 동시에 학제적 접근도 옹호했다. 이런 다원주의적 관점은 그녀가 『경제철학』에서 “우리는 믿음의 근원을 찾기 위해 영원히 방황해야 한다.”라고 한 말에 잘 나타난다(Robinson, 1962b).

사실 로빈슨이 이끈 케인즈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시간이었다. 로빈슨은 케인지언의 시대에 와서 케인즈혁명의 시간 개념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시간과 역사를 확실하게 경제분석에 올려놓은 맑스경제학으로 관심을 돌린다.¹¹⁾ 그녀는 학문하는 것을 민주적 결정 과정을 통한 진리 탐구 과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특정 학파의 독재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학파의 민주적 경쟁을 요구했다. 이런 까닭에 로빈슨은 당시 주류경제학에서 터부시되던 맑스경제학도 기꺼이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다.

11) 이는 로빈슨 경제학이 케인즈경제학의 장기화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것과 연관된다. 로빈슨은 맑스가 장기 동태분석을 했다고 이해했다(Robinson, 1942, p. 95).

〈Table 2〉 Comparison of Neoclassical Economics and Joan Robinson's Economics

Field	Neoclassical Mainstream Economics	Joan Robinson's Economics
Purpose of economic research	Making efficient choices	Creating a Good Economics
Understanding the economy	Closed System	Open System
Criteria for Truth	Pragmatism	Realism
Understanding Society and Individuals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Methodological Holism
Economic Subject	Economic man	Real human
Economic Methodology	Hypothetico-deductive Method, Positivism	Pluralism
Perception of the World	Material World Composed of Atoms	World of Interconnected Relationships
Time	Logical Time	Irreversible Historical Time
Capitalism	A System Fitting Human Nature	One of the Historical Systems

Source: Robinson (1978b); Harcourt and Kerr (2009); 홍태희 (2022, p. 17, p. 92).

하지만 로빈슨이 1965년 정교수로 취임하면서 한 강의는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를 대변했다. 이렇듯 그녀의 경제학을 하나의 잣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포스트 케인지언과 네오-맑스주의적 특징을 가진 다원주의 경제학자로 규정할 수는 있다(Cuyvers, 2022). 위의 〈Table 2〉는 신고전파 주류경제학과 조안 로빈슨 경제학을 비교한 것이다. 로빈슨 경제학에는 다원주의 경제학의 핵심 요소인 실재론과 방법론적 다원주의, 합리적인 경제인 비판, 전체론적 관점 등이 녹아있다. 로빈슨 경제학을 다원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속에 교차성, 여성주의, 생태주의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빈슨은 인간은 하나의 잣대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교차적 기제 속에서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Table 2〉에서 보듯이 로빈슨 경제학의 경제주체는 주류경제학의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현실의 인간이고,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잣대로 계급, 인종, 국가, 젠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로빈슨 경제학에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¹²⁾이 장착되었다. 가난의 문제, 인종의 문제, 제3 세계

문제, 성별 문제 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차적 관점이 필요했고, 교차적 상황 속에 결정되는 경제 현실에 대한 접근은 다원주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로빈슨의 다원주의 속에는 여성주의와 생태주의가 들어가 있다. 물론 로빈슨은 현재 여성주의에서 표방하는 교차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하지는 못했고, 여성주의를 표방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빅토리아식 성차별이 만연하던 20세기의 영국에서 살아간 그녀의 학문에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과 착취가 있다고 밝힌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에서 확인했듯이 성인지적 관점이 녹아있다. 로빈슨의 삶과 학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생태주의’이다.¹³⁾ 그녀는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비판하며 생태적 삶을 추구했다.

로빈슨의 경제학의 다원성은 학문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스승의 선택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녀가 가장 존경했던 경제학자는 아서 피구(Arthur. C. Pigou)와 케인즈였다고 한다. 마셜의 경제학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피구 경제학과 마셜 경제학을 비판한 케인즈경제학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명의 학자를 존경하는 로빈슨 경제학의 다원적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Staveren, 2021, pp.183-189).

3. 반(反)자본주의적 특징

로빈슨 경제학의 또 다른 특징은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와 평등을 강조했던 그녀의 세계관은 그녀를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이끈다. 물론 1930년대의 로빈슨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도 경제정책만 제대로 쓴다면 실업 같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연구 초기에 선배 교수들에게 맑스경제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맑스의 주장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Robinson, 1980). 하지만 1930년대 말에 와서 로빈슨은 케인즈의 완전고용 개념과 기술 진보의 본질, 케인즈경제학을 장기화하고, 이윤율과 분배 문제에 관한 대

12) 교차성은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기제, 즉 성별, 인종, 계급, 종교, 피부색, 민족, 국적 등의 사회적 범주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단일 범주로 사람의 정체성을 재단하는 것을 반대한다.

13) 비토 스킨카리올(Vitor Schincariol)은 로빈슨의 생태주의가 니콜라스 조르제스쿠-뢰겐(Nicholas Georgescu-Roegen)의 생태주의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특히 환경 문제와 신고전파경제학이 연관되었다고 보고, 신고전파경제학을 비판한 것이 비슷하다고 한다(Schincariol, 2020).

안을 찾기 위해 맑스경제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로빈슨이 원래 1953년에 썼다지만 1980년에 책의 한 장으로 출판된 “케인즈주의자가 맑스주의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그녀는 “당신은 맑스를 입으로 떠들지만, 나는 뱃속에도 맑스가 있다.”라고 했다. 이 말에 따르면 로빈슨은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출판되기 전에 이미 좌파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고, 맑스경제학을 수용했다는 것이다(Robinson, 1980). 그러니 학부 시절부터 돕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녀는 『자본론(Das Kapital)』에 등장하는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높이 평가했다. 맑스가 상품의 생산과 잉여가치의 실현을 구분했기 때문에 유효수요론과도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대안적 경제학의 가능성을 맑스의 확대 재생산도식에서도 찾으려 했다.¹⁴⁾

“맑스는 비록 세부적인 부분들을 불완전하게 해결했을지라도,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을 발견하는 임무를 스스로 맡았으며, 경제학이 조금이라도 진보할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맑스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학문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Robinson, 1942, p. 95).

맑스경제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로빈슨은 돕과 칼레츠키의 영향으로 맑스와 네오-맑스주의의 문헌을 광범위하게 읽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인했고, 점차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드러낸다. 1942년에 쓴 『맑스주의 경제학에 관한 에세이』에서 맑스경제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책에서 로빈슨은 여러 차례 칼레츠키를 인용했다(Robinson, 1942, pp. 80-81).

사실 칼레츠키는 로빈슨이 맑스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의 내적 불안정성과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 거시경제학을 만들려고 맑스경제학과 케인즈경제학을 두루 활용했다. 로빈슨은 ‘이윤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수요의 수준’이라는 칼레츠키의 주장을 맑스경제학과 비교해서 연구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로빈슨은 저축과 투자, 자본재 생산과 소비재 수요 사이의 균형을 찾으면서 칼레츠키 경제학과 해로드와 에브시 도마(Evsey Domar)의 경제성장론에서 실마리

14) 존 킹(John King)은 이 편지의 수신인이 뉴질랜드 출신 맑스주의 경제학자 로널드 미크(Ronald Meek)라고 했다(존 킹, 2022, p. 50).

를 찾으려고 했다(Robinson, 1955, p. 66).

1950년대부터 로빈슨은 경제문제 해결을 현실 경제체제와 결부해서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던 로빈슨은 사회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했다. 로빈슨의 이런 태도는 로빈슨의 사회주의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 실제로 로빈슨은 중국과 북한 같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와 그들의 정책을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그녀가 마지막 사상적 정착지로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은 ‘현실을 더 낮게 변화시키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둔 그녀의 평등주의적 정의관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4. 실재론적 특징

로빈슨의 학문적 기반은 ‘실재론(realism)’에 있다. 그래서 로빈슨의 연구는 ‘실재(reality)’¹⁵⁾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이어받은 포스트 케인지언이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과 연결되는 지점을 구축했다. 로이 바스카(Roy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¹⁶⁾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인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의 속성을 가진 실재라고 이해한다. 로빈슨은 분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경제학을 만들려고 시도했다.¹⁷⁾ 그래서 경제학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려고 했고, 현실에 상응하는 학문을 하려고 했다. 현실을 추상화하여 수학적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연역적이고 추상적인 주류경제학적 연구보다 실재론에 근거해서 제도,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실제적 법칙, 자본이 가지는 독점적 특성과 힘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태희, 2022, p. 90).

로빈슨은 신고전파경제학이 지나치게 단순한 전제, 측정되지 못하는 양,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이루어진 ‘반(反)실재적’인 경제학이라고 비판하며(Robinson

15) 여기에서 실재는 ‘사회적 실재’를 말한다. 로빈슨이 살아있을 때는 포스트 케인지언과 비판적 실재론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은 실재론적 경제학을 추구하면서 비판적 실재론과 연결된다.

16) 비판적 실재론을 경제학에 접목한 학자는 토니 로슨(Tony Lowson)이다. 비판적 실재론과 경제학에 관해서는 홍태희를 참고 바란다(홍태희, 2024, pp. 167-173).

17) 1979년에 번역된 한글 번역본 『현대경제학비판』의 한국 독자에게 쓴 글에서 로빈슨은 “신고전파경제학의 균형 개념을 버리면 해방감을 느낄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적 시간을 의식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라고 조언한다(Robinson and Eatwell, 1979, p. xii).

1985, p. 160), 역사적 시간 개념과 변화를 중심으로 실재론적 경제학을 구축하려고 했다(Robinson, 1973). 이런 실재론적 특징은 경제 현실에 맞는 경제이론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랫글은 로빈슨의 이러한 학문 태도를 잘 보여준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현재의 신고전학과 교리가 보여주는 혼란과 궤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추적했다. 그것은 신고전학과경제학의 정태적 균형이론에서 역사적 시간을 소홀히 다룬 것에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나는 더 희망적인 대안을 고전학과 전통에서 찾아왔다. 이 고전학과 전통은 리카도를 거쳐 맑스에 이르는 계보 속에서 형성되었고, 마셜에 의해 희석되었으나, 스라파에 의해 부활했고, 케인즈와 칼레츠키의 유효수요 분석으로 풍부해진 흐름이다.”(Robinson, 1973, p. xii).

그녀는 이렇게 다양한 경제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융합하여 자신의 경제학을 만들면서 신고전파경제학의 비현실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경제 현상의 실재를 드러냈다. 신고전파경제학의 가설연역법이나 수학적 논리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현실은 실재한다는 것이다.

IV. 조안 로빈슨 경제학의 기여

1. 경제철학과 경제학방법론 분야

로빈슨 경제학의 가장 큰 기여는 경제학 연구를 ‘균형’에서 ‘역사’로 전환시킨 것에 있다(Robinson, 1978b, pp. 126-136). 로빈슨은 『경제철학』에서 경제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고려하고, 실재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한 연구 방식을 강조했다(Robinson, 1962b, pp. 7-28). 그녀는 경제모형을 만들 때도 경제학자는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모형을 만들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학자가 가져야 할 미덕으로 기존의 관습적 방식을 거부하는 ‘용기’를 강조했다. 이렇게 로빈슨은 경제학의 핵심 과제가 실제로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므로 공개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학 연구 과정의 민주화’를 주장했다.

로빈슨은 실증분석이나 연역적 논리만 강조하는 주류경제학 연구방법론의 한계

를 지적했다. 주류경제학이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과 전제를 바탕으로 수학적 형식주의와 실증에 매몰되었다고 비판하며 사례연구나 역사적 연구 방법도 옹호했다. 로빈슨은 경제법칙이 결코 사회적 현실을 초월한 일반법칙일 수 없고, 경제학이 연역적 학문일 수 없다고 하며 경험적 방법론을 주장했다. 물론 그녀도 신고전파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했다(Robinson, 1962b).

이처럼 로빈슨은 다원적 연구 방법을 시도했다.¹⁸⁾ 로빈슨은 전제와 가정, 수학적 형식주의적 연구 방법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 접근방식을 옹호했다. 그리고 역사, 시간, 제도 등을 강조했다. 그녀는 경제 현상을 현실에 빚대어 단순하게 설명하기를 즐겼다. 로빈슨이 1937년 출간한 『고용이론에 대한 에세이』에는 로빈슨의 방법론적 다원주의가 드러난다. 로빈슨은 두 개의 경제체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며 서로 비교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역사적 시간의 변화를 주목하지 않았다.

로빈슨은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거시 경제정책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 가설연역법 등 신고전파경제학의 방법을 비판하며 역사, 제도,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점차 전체론적이고,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자본축적론』에서는 이런 분석 방법을 전면에 드러냈다. 로빈슨은 연구에서 과학과 이데올로기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경험적 사례로 비교하는 방법을 쓴다. 로빈슨은 ‘임금 압박론’¹⁹⁾에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다. 아랫글에서 로빈슨은 자신의 경제학방법론을 보여준다.

“요컨대, 어떤 경제이론도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진 답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모든 이론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다. 경제이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동과 그 안에 있는 과학적 요소들의 관계를 분류해야

18) 로빈슨은 방법론적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폴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의 ‘어떤 방법이 라도 가능하다(anything goes)’에서부터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Robinson, 1964). 파이어아벤트의 경제학방법론은 홍태희를 참고 바란다(홍태희, 2024, pp. 148-154).

19) 로빈슨은 노동자가 주도하는 화폐 임금의 상승 압력은 고용주의 하향 압력과 부딪히게 되고, 이 갈등의 결과 임금 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하면서 임금이 권력관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임금압박론’을 설명한다. 아울러 실업률과 임금 상승 사이에 역의 관계가 있다고 하며 실업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약화한다고 했다. 명목 임금의 상승은 항상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서 고용의 증가를 제약하므로 임금 인상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높은 고용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완전고용 달성에는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고, 다음에는 경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과학적 요소가 어디까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지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맞추어 보아야 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경제적 질문에 대한 일련의 이미 내려진 답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에게 속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Robinson, 1955, p. 75)

2. 미시경제학 분야

로빈슨은 연구 초기에는 거시경제학보다는 미시경제학에 관심을 가졌다. 미시경제학 분야의 성과는 무엇보다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의 출판이다. 이 책은 신고전파경제학의 전통 속에서 쓰인 책이다. 이윤극대화를 위한 한계 개념을 사용한 로빈슨은 구매자가 한 명뿐인 시장을 예시로 들면서 ‘수요독점(monopsony)’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했다(Robinson, 1933, pp. 218-228, pp. 302-304).

이를 통해 노동이 한계생산물의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이유를 밝히며, 여성 노동의 저임금을 해명할 실마리를 마련해주었다.²⁰⁾ 여성 저임금의 원인은 남성 노동보다 낮은 여성 임금을 책정할 가격 책정 권한을 독점적 수요자인 기업이 가지기 때문이다(Robinson, 1933, p. 302; Naylor, 1994).

이 책에서 그녀는 가격기구만으로는 가격 결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현실에서 가격은 불완전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 관습과 미래에 대한 기대, 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며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현실의 경쟁시장에서 작은 차이가 나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점차 독과점화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자본의 집중은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소비자와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Staveren, 2021, pp. 183-185; Damade, 2020).

이 책으로 그녀는 명성을 얻었고, 에드워드 H. 챔벌린(Edward H. Chamberlin)과 함께 ‘독점적 경쟁 혁명(Monopolistic Competition Revolution)’을 일으켰다고 평가되었다. 당시의 경제학계도 대부분 산업이 완전경쟁도 독점도 아니라는 현실을

20) 로빈슨의 노동시장 연구는 밀리센트 포셋(Millicent Fawcett)의 ‘과밀가설(crowding hypothesis)’과 함께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저임금을 설명하는 최초의 과학적 분석으로 평가된다(홍태희, 2023, p. 192).

주지했고, 독점적 경쟁론을 인정했다. 하지만 로빈슨은 1975년에는 자타가 공인한 성공작 『불완전경쟁의 경제학』도 신고전파경제학을 기반으로 집필되었으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가치론과 자본론 분야

로빈슨은 가치가 경제 현상에 가지는 역할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그녀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신고전파경제학으로 넘어가면서 폐기한 객관적 가치론을 다시 조명하며, 리카도 경제학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녀는 케임브리지 자본논쟁을 통해서 신고전파경제학이 이질적인 자본재를 일반화시켜서 가격으로 추상화시키고, 동질적인 생산요소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Robinson, 1962a, pp. 33-36). 그리고 자본이 동질적인 생산요소가 아니라 언제나 형태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윤을 자본의 한계생산물에 대한 보수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했다.

자본이 가져오는 이윤(=한계생산물)을 측정하려면 먼저 자본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자본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자본의 한계생산물 크기를 알아야 한다. 생산요소의 가격 없이는 총산출의 크기를 알 수 없고, 총산출의 크기를 알지 못하면 자본의 가격을 알 수 없다. 이를 통해 로빈슨은 신고전파경제학의 치명적인 오류를 밝혔다.

로빈슨은 자본이 이질성을 가지므로 각 자본은 서로 다른 수익률을 가진다며 신고전파경제학의 자본 측정 방식을 비판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자본논쟁’에서 ‘재 전환(reswitching)’과 ‘자본 역전(capital reversal)’을 통해 이윤과 임금이 한계생산물의 가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윤이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계급 간의 권력관계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사무엘슨이나 솔로의 자본 이해에 대한 영국 케임브리지의 비판은 타당했고, 논쟁은 영국의 승리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논쟁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한 학자는 스라파였다. 그러나 스라파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폄하되었고, 로빈슨은 일약 유명인 반열에 올랐다. 논쟁 이후에도 경제학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본과 노동을 생산요소로 성장함수를 만들었다. 로빈슨과 스라파의 자본 비판은 타당했지만, 이들도 대안적 자본이론을 완성하지는 못했고, 자신들도 자본과 노동을 변수로 한 생산함수를 가지고 연구했다.

4. 자본축적론과 경제성장론 분야

로빈슨은 자본주의의 제도적 조건 및 이윤과 임금의 장기 동학을 제시하면서 포스트 케인지언의 성장론의 초석을 놓았다. 변화와 역사적 시간을 중심으로 실재를 파악한 로빈슨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자본을 전제로 한 왈라스와 마셜의 경제학을 비판했다. 그리고 장기적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투자, 저축, 기술 진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내생적 성장론을 제시했다(Oughton and Tobin, 2023, pp.963-964).

로빈슨은 『자본축적론』에서 유효수요론의 장기화를 통해 케인즈경제학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기술의 선택이나 자본 측정 문제를 해명한다(박만섭, 2014). 그리고 유효수요가 장기적 경제성장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은 투자, 사내 유보금, 임금 수준이 결정하지만, 이런 변수 또한 사회의 제도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로빈슨은 공공이 자본을 적절히 통제해야만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와 투자의 균형이 성장을 담보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본축적론』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실 『자본축적론』의 제1권은 수학적 모델링이나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서 좋은 평을 받기가 어려웠고, 제2권에서는 수치적 예시를 보였지만 이론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5. 경제학 교육 분야

마지막으로 로빈슨의 기여는 경제학 교육과 관련된다. 로빈슨은 경제학 교육에도 진보적 관점을 유지했는데, 신고전파경제학 일색의 경제학 교육을 비판했다. 로빈슨은 신고전파의 시장균형 경제학이 세대를 이어 경제학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학 교육의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obinson, 1973, p. xiii).

그녀가 경제학 교육 방식을 두고 거튼 칼리지의 마조리 홀론드(Marjorie Hollond)와 갈등을 빚었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로빈슨은 학생들에게 최신 경제이론을 가르치고 싶어 했지만, 홀론드는 입증되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한

다고 반대했다(Staveren, 2021, p. 186). 로빈슨의 진보적 교육철학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와의 진보적인 학풍을 만드는 것에도 작용했다.

그녀는 단지 경제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로서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진지함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인 발전과 학생들에게 사회지도층으로 가져야 할 덕목을 기를 수 있게 했다(Waterman, 2003). 아울러 로빈슨은 그 존재만으로도 20세기 후반까지도 금녀의 영역이던 경제학계의 분위기에 위축되었던 여학생들에게 ‘여성도 경제학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V. 조안 로빈슨 경제학을 둘러싼 논란

1. 연구의 고유성과 연구 아이디어 소유권 문제

로빈슨은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후 3년 만인 1933년에 『불완전경쟁의 경제학』을 출간했다. 아슬란베이구이와 오크스는 책 출판 당시 로빈슨이 제대로 된 경제학과 수학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 로빈슨 스스로 책에 자신이 수학에 완전히 무지하다고 밝혔다(Robinson, 1933, p. 25). 그래서 책의 실질적 저자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 초벌은 로빈슨이 썼지만, 오스틴이 자료 수집과 서문을 맡고, 칸은 수학적 부분을 쓰고, 책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책은 로빈슨을 단독 저자로 해서 출판되었다. 로빈슨도 오스틴이 이 책의 체계와 내용을 잡아 주고, 칸이 자료작업을 해주지 않았다면 출판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Aslanbeigui and Oakes, 2009, pp. 45-49).

로빈슨의 초고를 본 피구는 수학적 결함을 발견하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빈슨은 피구의 반론을 이해하지도 반박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빈슨은 피구와 대화를 시도했고, 대화 과정에 피구가 스스로 수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게 했다고 한다. 로빈슨은 피구의 해결책으로 원고를 보완해서 출판했다(Aslanbeigui and Oakes, 2009, p. 3).

또 다른 문제는 불완전경쟁시장 연구의 아이디어 소유권 문제이다. 이 책은 챔버린이 1927년 하버드대학교 박사논문으로 제시한 내용과 많이 겹치고, 심지어 그는 이를 로빈슨보다 몇 개월 먼저 출판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같이 있던 제럴드 쇼브(Gerald Shove)도 여러 해 동안 이 분야에 대해 강의록을 만들면서 강의하고 연

구했으나 책 출판을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칸으로부터 로빈슨이 출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쇼브는 불만스러웠다. 로빈슨은 자신이 출판하기 위해 케인즈 같은 주위 사람을 동원했고, 쇼브는 이를 받아들였다. 수업이나 출판 등의 문제로 로빈슨은 여러 학자와 불편하게 지냈다. 로빈슨은 칸과의 염문, 연구의 아이디어 소유권 등의 문제로 신경쇠약을 앓았다고 한다.

2. 경제학 연구의 전문성 문제

로빈슨은 연구하며 허세를 부렸다는 비판도 받는다. 1942년 『맑스주의경제학에 관한 에세이』를 출판한 그녀는 『자본론』을 읽었지만, 노동가치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도 인정하지 않았고, 헤겔 철학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맑스경제학의 중심축인 노동가치설과 헤겔 변증법을 이해하지 않고 맑스경제학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녀는 이 책으로 신고전파경제학에 맑스경제학을 통합했다고 했지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녀가 『일반이론』을 잘 이해했는지도 의문이다. 케인즈가 간파한 것처럼 1930년대의 그녀의 경제학 실력으로 『일반이론』을 제대로 읽은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된다(Aslanbeigui and Oakes, 2009). 특히 『일반이론』의 15장, 20장, 21장을 읽을 수학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들도 있다. 케인즈가 『일반이론』을 집필할 때 로빈슨이 케임브리지 서커스의 일원으로 집필을 도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Gram and Walsh, 1983, p. 548).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최근 연구도 있다(Brady, 2018, p. 18; 2022).

1936년 로빈슨은 칸이나 오스틴의 검열을 받지 않고 『일반이론』 입문서인 『고용이론 연구』의 초안을 케인즈에게 보냈다. 그때 케인즈는 로빈슨이 자신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했고, 경제학이나 수학적 기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²¹⁾ 그래서 케인즈는 로빈슨에게 책에 오류가 많으니 출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로빈슨은 책을 출판했다(Aslanbeigui and Oakes, 2009; Brady, 2018).

로빈슨이 주위 학자들과 협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협업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협업의 성격이 문제이다. 무엇보다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긴 세월 동안 경

21) 이런 논란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대개 남아 있는 학자들 간의 서신을 중심으로 역추적하는 것이어서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학자로 살아 온 그녀가 타인에게 수학 도움을 지속해서 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칸은 로빈슨의 작업마다 자료작업과 수학적 보충을 했다. 그녀의 학문적 업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아모르-로빈슨 방정식(Amoroso - Robinson relation)은 동태적 일반이론을 개척한 루이지 아모르소(Luigi Amoroso)의 수리경제학적 능력이 바탕이 되었다. 그녀의 『자본축적론』도 로빈슨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챔퍼노운(David Champernowne)과 칸이 쓴 7쪽짜리 수학 부록이 추가되어 있다. 이후 1962년 쓴 『경제성장론 에세이(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에서 로빈슨은 자본 투자가 핵심 변수가 되는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했다. 이 책의 수학적 도식화 작업은 케네스 쿠리하라(Kenneth K. Kurihara)가 했다. 그녀는 “자신은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할 수 있었고, 방정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수학 밑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경제행위에 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수학적 모형을 첨부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3. 조안 로빈슨의 현실 인식 문제

로빈슨은 말년으로 갈수록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를 점점 비판적으로 보았고, 사회주의를 찬양했다. 그래서 로빈슨은 직접 8번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연구했고,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철학을 분석했다. 그리고 1969년 『중국의 문화혁명(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1975년 『중국의 경제관리(Economic Management in China)』를 출판했다. 로빈슨은 맑스와 다르게 토대와 상부구조를 이해한 마오쩌둥의 관점을 네오-맑스주의적 관점으로 보고, 이를 지지했다. 이런 그녀의 관점은 아랫글에 잘 나타난다.

“고전적 관점에서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에는 일방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토대가 중요시되지만, 마오쩌둥은 상부구조도 토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사상도 물질적 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 교조적 맑스주의자는 이것이 틀렸다고 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교조적인 맑스주의가 역지를 부리는 것이다.”(Robinson, 1969, p. 12).

경제학자 로빈슨의 사회주의 지지는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 인식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녀가 중국의 문화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강하고, 적어도 백만에서 이백만 명 정도가 살해된 광기 어린 10년이었다. 이런 폭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던 그녀의 현실 판단을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로빈슨에 대한 융숭한 접대가 그녀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중국 사회주의를 칭찬했었고,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소련 사회주의에 관한 그녀의 판단에도 이런 비판이 따른다(Nasar, 2011). 당시 학자들은 물론 학생들조차 로빈슨의 이런 행동을 비판하거나, 우스갯거리 정도로 치부했었다(Waterman, 2003, p. 594).

로빈슨의 현실 인식을 의심할 또 다른 사건은 그녀가 북한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점에 있다. 그녀는 1964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후 1965년 출판한 “북한의 기적(Korean Miracle)”에서 북한의 성공이 “독재자라기보다는 메시아”인 김일성의 지도력 아래 “민족적 자부심을 세우려고 노력한 덕분”이고, 북한을 빈곤 없는 국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남한을 사회주의로 흡수통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Robinson, 1965, p. 28).

이는 1961년에 시작한 북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몇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칭찬했던 것은 그녀가 특정 경제적 사실이나 사회주의 국가의 선전 문구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남한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현재 시점에서 본 비판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학자의 특정 시점의 판단이나 그에 따른 학문적 작업은 시간 속에 고정되어 있는데 현실은 역동적으로 변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아시아에서 벌어졌던 반인륜적인 상황과 독재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에서 로빈슨은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로빈슨의 현실 사회주의에 관한 태도가 ‘무비판적이고, 몽상가적’이라고 평가했던 학자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Harcourt and Kerr, 2009, p. 66; Nasar, 2011). 이는 영국의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로빈슨의 현실 도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VI. 조안 로빈슨의 유리천장 깨기

1. 전략적 행동과 기회 포착 능력

로빈슨은 남성 동료, 남편, 파트너 등에 가려서 역사에서 지워진 많은 여성학자와 달리 자기 이름을 경제학계에 확실히 각인했다. 이렇게 로빈슨이 자신의 입지를 굳힌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천재 여성경제학자의 불굴의 탐구 정신이 실현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Aslanbeigui and Oakes, 2009; Brady, 2018; Nasar, 2011).

물론 로빈슨의 성공은 그녀가 성공하려고 애쓴 결과이다. 하지만 사회적 성공은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학부 과정에서 로빈슨은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로빈슨의 선배 격인 메리 페일리 마셜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케인즈의 인정도 받았지만, 평생 남편 마셜의 조력자로 살았다. 그녀와 비교하면 낮은 졸업성적을 받았는데도 로빈슨은 경제학계의 주축이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자로 자리 잡으려면 케인즈의 인정을 받고 케임브리지 서커스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이 그룹에 속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였다(Aslanbeigui and Oakes, 2009, pp. 224-225). 그녀는 이 점을 정확하게 인지했다. 하지만 케인즈에게 로빈슨은 1931년까지도 경제학자로 인식되지 않았고, 그저 오스틴의 부인으로 각인되어 있었다(Aslanbeigui and Oakes, 2009, p. 22). 그래서 그의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²²⁾ 케인즈와 연결되기 위해 로빈슨이 칸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칸은 로빈슨을 케인즈는 물론 여타 다른 경제학자와 교류할 수 있게 연결해 주었다.

로빈슨은 케인즈의 측근이 되려고 노력했고, 1936년 출판된 『일반이론』을 대중에게 열심히 알렸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치밀하게 연구하려고 했다. 로빈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케인즈혁명’이라고 떠들면서 『일반이론』을 선전했고, 당시 케인즈에게 비판적이던 원로학자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케인즈 『일반이론』의 텐트 아래로 모았다(Aslanbeigui and

22) 케인즈는 메리 페일리 마셜의 전기를 쓸 만큼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녀를 높이 평가했다(Keynes, 1974).

Oakes, 2009). 이렇게 추종자들이 생기자, 세력이 만들어졌고, 케인즈도 이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고, 로빈슨의 영향력은 커졌다. 이렇게 케인즈의 측근이 된 후 로빈슨은 『일반이론』을 알린다고 『일반이론』 입문용 교과서로 1937년 『고용이론 연구』와 『고용이론 입문』까지 쓰는 충성을 보인다.

사실 케인즈에게도 로빈슨은 쉽지 않은 대상이었다. 아끼는 제자 칸의 연인이고,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는 『경제학 저널(Economic Journal)』의 부편집장이던 오스틴의 부인이었다. 로빈슨의 학문적 상황을 케인즈가 파악했어도 칸과 오스틴이 받을 타격을 우려해서 내칠 수도 없었다고 한다(Brady, 2018, p. 18). 어쨌든 로빈슨은 이런 노력에 힘입어 1937년에는 종신 경제학 강사도 되고, 케임브리지학과의 중심인물이 된다.

이처럼 로빈슨이 세계적인 학자가 된 것은 그녀의 학문적 노력도 작용했겠지만, 전략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것도 작용했다. 특히 그녀가 늘 주위 남성 연구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맑스경제학을 연구할 때는 칼레츠키의 도움을 받았고, 케임브리지 자본논쟁에서는 스라파가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오스틴과 칸이 옆에서 도와주었다.

2. 토크니즘과 행위자 네트워크이론

로빈슨의 유리천장 깨기에 관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다. 그중 ‘토크니즘(tokenism)’도 유의미한 설명 방식을 제공한다.²³⁾ 대다수 여성은 이중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힘 있는 남성에게 선택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점이 ‘토큰(token)’으로 작용하고, 다른 여성과는 다른 지위를 갖게 된다.

토크니즘으로 불리는 이 현상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 세력에 대한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의 주류는 극소수의 소수 세력 구성원을 ‘구색 맞추기용’으로 등용한다. 이런 사례는 여성이 소수 대표성을 가지는 사회 조직, 기업, 정치권, 학

23) 토크니즘은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외부의 비판을 피하고 다양성을 갖추었다고 알리기 위해 소수자 그룹에 속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척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크니즘에 따르면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할 때 성공 여부는 여성의 능력이 아니라 남성의 선호나 심리에 따라 결정된다. 소수 대표성을 가진 토크들은 성과 압박에 노출되고, 지나친 관심과 감시를 받게 되기 쉬우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이탈된다.

계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 로빈슨은 당시 영국 경제학계에서 토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인 경제학계에도 여성경제학자가 있다는 것을 통해 여성 차별을 시정하는 인상을 주게 되지만,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토큰은 토큰으로의 가치가 사라지면 주류에서 이탈된다고 한다. 여성경제학자가 많이 등장했던 20세기 후반에는 소수 대표성을 띠던 로빈슨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로빈슨은 예전 같은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출판된 서적도 예전 같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말년에 보여준 로빈슨의 중국과 북한 관련 행보나 극단적인 생태주의는 로빈슨의 주류사회 이탈을 보여준다.

또 다른 설명방식으로 부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 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참조할 필요도 있다(Latour, 2005).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은 네트워크 내의 특징인이 실수하더라도 같이 해결하여야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같은 네트워크의 학자들이 로빈슨의 오류와 한계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를 묵인하고, 고쳐주고, 학자로 성공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여성경제학자 로빈슨을 만드는 것이 케임브리지학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로빈슨의 유리천장 깨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능했었다고 볼 수 있다.

VII. 맺음말

이상 본 연구는 여성경제학자 로빈슨 경제학의 전개 과정과 특징, 기여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로빈슨 경제학에는 다원주의와 교차적 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선구적인 여성학자였던 로빈슨은 여전히 많은 여성학자의 영웅이고, 경제학계의 전설적 인물이다. 특히 그녀의 실재론적 시각을 통해 자본주의와 경제학에 대한 경제학계의 생각에 경종을 울렸다. 무엇보다 불완전경쟁시장을 보여주면서 이런 독점적 구조가 여성 저임금의 원인인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었고, 주류경제학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착취 이론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안 로빈슨은 뛰어난 경제학자 중 한 명이고, 유리천장을 부순 용감한 여성학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녀는 뿌리 깊은 성차별주의가 득세한 영국 대학 문화 속에서 자신의 학문 세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으며, 스스로 삶 속에서 이를 증명해 보였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로빈슨은 경

제학자와 사상가들과 교류하고 논쟁하며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두루 섭렵했다. 그리고 자신의 멘토와 지지자를 만들고 기회를 포착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로빈슨 경제학의 특징인 비판주의, 다원주의, 실재론 등은 오늘날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로빈슨이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비주류인 여성이 마주한 경제적 현실이 주류인 남성 경제학자와 달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실재를 파악하는 경제학 만들기를 염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그녀는 실재가 교차적 기제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지했었기에 신고전파경제학에서 학문을 시작했지만, 비주류경제학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로빈슨 경제학 속에서 경제학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경제학의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로빈슨 경제학에 관해서 학계가 다시 따져 물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보수적 가부장제의 희생자로 치부된다. 이는 로빈슨의 경우 한편으로는 사실이다. 로빈슨이 남성이었다면 더 일찍 정교수가 되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로빈슨의 경우 오히려 여성이라서 쉽게 인정받았고, 유명해졌고, 소수 대표성을 띠며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학문적 성과에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녀는 주류경제학이 현실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를 대신할 대안경제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사회주의로 향한 그의 학문적 결론은 인정하지만, 현실 사회주의에 관한 지나치게 우호적인 판단은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지나치게 부풀려 평가되던 로빈슨에게 낡은 거품이 제거되면서 연구의 고유성과 전문성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로빈슨은 토크니즘이 설명하는 것처럼 남성사회의 선택을 받아 ‘구색 맞추기용’ 토크니즘으로 선택되었기도 하고,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의 설명처럼 케임브리지학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로빈슨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오류는 고쳐주면서 대표적인 여성경제학자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 성공을 위해 노력했고, 기회를 포착했고, 쟁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여성은 쉽게 숭배되고, 쉽게 악마화된다. 이런 여성혐오의 세상을 로빈슨은 용감하게 살아갔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빈슨이 삶에도 학문에도 반항이었지만

과학적 합리성을 찾으려고 했고(Bhaduri, 2010, p.31), ‘열정적인 구도자(a passionate seeker after truth)’였다는 점은 분명하다(Harcourt, 1983).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로빈슨의 학문과 삶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나 자료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로빈슨 경제학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영웅의 몰락을 지켜보는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 또한 로빈슨의 비판 정신을 이은 후학들의 의무이다.

■ 참 고 문 헌

1. 김태원, 『조안 로빈슨의 경제학 불완전 경쟁 이론 톺아보기』, 루미너리북스, 2024.
(Translated in English) Kim, Taewon, *An Exploration of Joan Robinson's Economics, Theory of Imperfect Competition*, Luminarybooks, 2024.
2. 박만섭, “케인즈 일반이론의 일반화, 조앤 로빈슨 〈자본축적론〉,” 김진방 · 박만섭 · 이규상 · 최정규 · 홍훈, 『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현대편』, 더난출판사, 2014, pp. 350-389.
(Translated in English) Park, Man-Seop, “Generalization of Keynes's General Theory, Joan Robinson, 〈Capital Accumulation〉,” in J. Kim, M. Park, G. Lee, J. Choi, and H. Hong, *Reading Economic Literacy of the Contemporary Era*, Thenan Publishing, 2014, pp. 350-389.
3. 오정근, “조안 로빈슨의 생애와 경제사상: 탄생 100주년을 보내며,” 『계간 사상』, 제60호, 2004, pp. 182-201.
(Translated in English) Oh, Jeong-geun, “The Life and Economic Thought of Joan Robinson: A Centennial Celebration,” *Quarterly Thought*, No. 60, 2004, pp. 182-201.
4. 이현재, “한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 반성과 제언,” 『한국경제포럼』, 제18권 제2호, 2025, pp. 1-29.
(Translated in English) Lee, Hyun Jae, “Economics and Economists in Korea: Assessments and Suggestions,” *The Korean Economic Forum*, Vol. 18, No. 2, 2025, pp. 1-29.
5. 홍태희, 『비주류경제학과 대안경제학 I』, 박영사, 2022.
(Translated in English) Hong, Tae-Hee, *Heterodox Economics and Alternative Economics I*, Park Young Sa, 2022.
6. _____, “해리엇 테일러 밀의 경제학과 경제사상: 존 스튜어트 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제41권 제4호, 2023a, pp. 45-64.
(Translated in English) Hong, Tae-Hee, “A Study on the Economic Idea of Harriet Taylor Mill: Focusing on her Relation with John Stuart Mill,”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Vol. 41, No. 4, 2023a, pp. 45-64.
7. _____, “신고전파경제학자의 성 물인지성 : 알프레드 마셜과 메리 페일리 마셜의 삶과 경제학,” 『한국여성학』, 제39권 제1호, 2023b, pp. 171-199.
(Translated in English) Hong, Tae-Hee, “Gender-Blindness in Neoclassical Economists: A Case Study of Alfred Marshall and Mary Paley Marshall,” *Hanguk Yeoseonghak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ol. 39, No. 1, 2023b, pp. 171-199.
8. _____, 『경제철학과 경제학방법론』, 박영사, 2024.
(Translated in English) Hong, Tae-Hee, *Philosophy of Economics and Methodology of Economics*, Park Young Sa, 2024.
9. Alves, C., “Joan Robinson on Karl Marx: His Sense of Reality Is Far Strong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6, No. 2, 2022, pp. 247-264.
10. Aslanbeigui, N. and G. Oakes, *The Provocative Joan Robinson: The Making of a Cambridge Economist*, Duke University Press, 2009.
11. Becchio, G., *A History of Feminist and Gender Economics*, Routledge, 2009.

12. Bhaduri, A., "An Intellectual Phenomenon Called Joan Robinso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5, No. 33, 2010, pp.31-32.
13. Bhaduri, A., and J. Robinson, "Accumulation and Exploitation: An Analysis in the Tradition of Marx, Sraffa and Kalecki,"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4, No. 2, 1980, pp.103-115.
14. Brady, M. E., "The Pseudo Keynesians (Joan Robinson, Austin Robinson, Richard Kahn) Against J. M. Keynes on the Liquidity Preference Theory of the Rate of Interest: The Reliance of Joan Robinson on A. Robinson and R. Kahn," *SSRN Electronic Journal*, June 24, 2018, Doi.org/10.2139/ssrn.3201758.
15. _____, "Joan Robinson Was the First Bastard Keynesian: There Is No 'Perhaps'," *SSRN Electronic Journal*, 2020, Doi.org/10.2139/ssrn.3689765.
16. Cuyvers, L., *Neo-Marxism and Post-Keynesian Economics From Kalecki to Sraffa and Joan Robinson*, Routledge, 2022.
17. Damade, L., "The influence of Joan Robinson on Economic thinking," the TSEconomist, 2020, <https://thetseconomist.wordpress.com/2020/02/09/the-influence-of-joan-robinson-on-economic-thinking/>.
18. Dimand, R. W., M. A. Dimand, and E. L. Forget, (eds.), *A Biographical Dictionary of Women Economists*, Edward Elgar Publishing, 2000.
19. Dow, S., "Foreword," in J. Robinson, *Economic Philosophy*, Routledge, 2021, pp.viii-xvi.
20. Gibson, B., (ed.), *Joan Robinson's Economics: A Centennial Celebr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2005.
21. Gram, H. and V. Walsh, "Joan Robinson's Economics in Retrospec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1, No. 2, 1983, pp.518-550, <https://www.jstor.org/stable/2724988>.
22. Harcourt, G. C., *Some Cambridge Controversies in the Theory of Capi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23. _____, "Obituary: Joan Robinson 1903-1983," *The Economic Journal*, Vol. 105, No. 432, 1983, pp.1228-1243.
24. Harcourt, G. C., and P. Kerr, *Joan Robinson*, Palgrave Macmillan, 2009.
25. Hodgson, G. M., *Is There a Future for Heterodox Economics?*,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26. Keynes, J. M., "Essays in Biography," in D. Moggridge, (ed.), *CWJMK*, Vol. 10, Macmillan, 1972. [정병휴 역, 『경제학자의 생애』, 삼성문화재단, 1974.]
27. King, J., *History of Post-Keynesian Economics*, Edward Elgar Publishing, 2002. [현동균 · 박해선 역,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에의 초대』, 진인진, 2022.]
28. Kuiper, E., *Women's economic thought in the eighteenth century*, Routledge, 2014.
29. _____, *A Herstory of Economics*, Polity Press, 2022.
30. Latour, B.,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1. Marcuzzo, M. C., L. L. Pasinetti, and R. Alessandro, (eds.), *The Economics of Joan Robinson*, Routledge, 1996.
32. Martins, N. O., "Joan Robinson and the reconstruction of economic theor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47, No. 5, 2023, pp.883-907, <https://doi.org/10.1093/cje/bead018>.
32. Nasar, S., *Grand Pursuit: The Story of Economic Genius*, Simon & Schuster, 2011.
33. Naylor, R., "Pay discrimination and imperfect competi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Economics*, Vol. 60, No. 2, 1994, pp.177-188.
34. Oughton, C. and D. Tobin, "Joan Robinson: early endogenous growth theorist,"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47, No. 5, 2023, pp.943-964.
35. Pasinetti, L., "Robinson, Joan Violet," in J. Eatwell, M. Milgate, and P. Newman, (eds.),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Vol. IV, Macmillan Press, 1987, pp.212-217.
36. Pujol, M. A., "Gender and class in Marshall's "Principles of Economic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8, No. 3, 1984, pp.217-234.
37. Robinson, J.,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Macmillan, 1933.
38. _____, *An Essay on Marxian Economics*, St. Martin's Press, 1942.
39. _____, "Th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Theory of Capital,"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1, No. 2, 1953-1954, pp.81-106.
40. _____, "Marx, Marshall and Keynes," in J. Robinson,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Blackwell, 1955, pp.61-75.
41. _____, *The Accumulation of Capital*, Macmillan, 1956.
42. _____, Notes on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ollected Economic Papers*, Vol. II (CEP II), Blackwell, 1960, pp.88-106.
43. _____,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Macmillan, 1962a.
44. _____, *Economic Philosophy: An Essay on the Progress of Economic Thought*, Watts and Co., 1962b.
45. _____,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Vol. 16, No. 9, 1965, pp.541-549, https://doi.org/10.14452/MR-016-09-1965-01_2.
46. _____,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Pelican, 1969.
47. _____,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No. 1/2, 1972, pp.1-10.
48. _____, "Preface to J. A. Kregel," in J. A. Kregel, *The Reconstruction of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Post-Keynesian Economics*, Macmillan, 1973, pp.ix-xiii.
49. _____,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Blackwell, 1978a.
50. _____, *Further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Blackwell, 1978b.
51. _____, "An Open letter from a Keynesian to a Marxist," in J. Robinson, *What are the Questions and Other Essays*, Routledge, 1980.
52. _____,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Employment*, second edition, Macmillan, 1969. [박영일 역, 『케인즈고용이론입문』, 법문사, 1981.]

53. _____, "The Theory of Normal Prices and Reconstruction of Economic Theory," in G. R. Feiwel, (ed), *The Theory of Normal Prices and Reconstruction of Economic Theory*, Macmillan, 1985, pp.157-165.
54. Robinson, J. and J.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McGraw-Hill, 1973. [주종환 역, 『현대경제학비판』, 일조각, 1979.]
55. Samuelson, P. A., *Readings in Economics*, McGraw-Hill, 1970.
56. Schincariol, V. E., "Joan Robinson on environment and ecology," Conference Paper, 2020.
57. Staveren, I. v., "Joan Robinson on Economic Pluralism," in I. v. Staveren, *Alternative Ideas from 10 (Almost) Forgotten Economists*, Palgrave, 2021, pp.177-196.
58. Waterman, A. M. C., "Joan Robinson as a Teacher," *Review of Political Economy*, Vol. 15, No. 4. 2003, pp.589-596.

Heroine and Token : The Characteristic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Joan Robinson's Economics*

Tae-Hee Hong**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the life and economics of Joan Robinson, a world-renowned figure, yet little known in Korea for her research and methods. It also sheds light on the contribution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Robinson's economics. Specifically, it analyzes how she shattered the glass ceiling and became a key figure in the 'Cambridge School'. Through Robinson's case, it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a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prevailing view in the male-dominated field of economics, which views women as victims. I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research on female scholars. The study proceeds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Robinson's life and the development of her academic career. Next,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obinson's economics. Next, it examines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Next, it introduces several controversies surrounding Robinson's economics to reevaluate it. Finally, we analyze how she was able to break the glass ceiling. The research method utilizes a literature review of Robinson's works and secondary sources related to Robinson.

Key Words: Joan Robinson, Post-Keynesian Economics, Tokenism

JEL Classification: A0, B0, B3

Received: June 12, 2025. Revised: Aug. 5, 2025. Accepted: Oct. 24, 2025.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25 research Grant from Chosun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osun University, 76, Chosundae 5 gil, Dong-gu, Gwangju 61452, Korea, Phone: +82-62-230-6807, e-mail: hth@chosun.ac.kr